

協力：NPO法人平城宮跡サポートネットワーク

- 시설공개: 9:00-16:30<단, 입관은 16:00까지>
- 휴 관: 월요일<월요일이 휴일일경우는 화요일>연말연시
- 문의: 전화 0742-30-6753  
E메일 jim@nabunken.go.jp
- <http://www.nabunken.go.jp/>



● 交通: 近鉄大和西大寺駅東へ徒歩15~30分 奈良交通バス・近鉄JR奈良駅~西大寺

# 세계유산 / 특별사적

## 平城宮跡 가이드

공개시설 **입장 무료**

평성궁터 자료관·유구전시관·주작문  
제1차대극전·평성궁 동원정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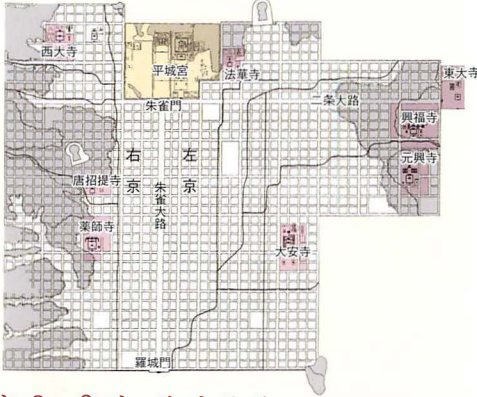


独立行政法人 国立文化財機構  
奈良文化財研究所

## ■ 平城京과 平城宮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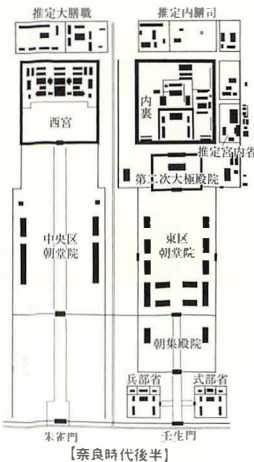
710(和銅3)년, 飛鳥(아스카)와 가까운 藤原京(후지와라쿄오-奈良 県 橿原市)에서 奈良盆地の 北端에 새롭게 만들어진 平城京(헤이조쿄오)로 도읍이 옮겨졌다.

당나라의 長安을 본보기로 설계되었는데 南北 약 5km, 東西 약 6km로 도읍의 가운데 북쪽에는 정치의 중심이 되는 「平城宮(헤이조쿄우)」이 세워졌다. 平城宮은 동서와 남북 약 1km로 大極殿(다이교쿠덴)과 朝堂院(초오도오인) 등의 宮殿 외에 天皇의 거주지인 內裏(다이리)가 있고 주위에는 관청이 늘어서 있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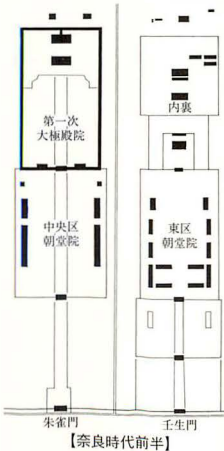
## ■ 平城宮은 옮겨 세워졌다

平城宮에 도읍이 옮겨진 710년부터 長岡京로 도읍이 옮기는 784년까지의 75년간을 奈良時代(나라지다이)라고 한다. 聖武天皇이 740년부터 745년까지 恭仁京이나 難波京 등에 도읍을 옮기지만, 그 전후에서 平城宮의 궁전이나 관청은 크게 개축되었다.



복원된 大極殿은 奈良時代 전반의 것이다. 奈良時代 후반에는 大極殿은 동쪽 구획에 있

는 內裏의 남쪽으로 다시 만들어졌다. 이것을 第二次大極殿이라고 부르고 있다. 內裏나 다른 많은 관청에서도 奈良時代 동안에 몇 번이나 개축이 이루어졌다. 건물이 남아있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원가의 이유가 있었으리라 생각된다.



## ■ 朱雀門



平城京의 입구에는 羅城門(라조오문)이 있는데 폭 75m의 중심거리인 朱雀大路를 북쪽으로 3.7km 걸어가면 맞닿는 것이 平城宮의 正門, 「朱雀門」이다. 平城宮의 주위는 큰 담장으로 에

워싸고 전부 12개의 문을 냈다. 朱雀門은 平成10년(1998)에 복원되었다. 朱雀門의 규모는 정면 폭이 25m, 측면 폭 10m, 높이 22m로 지붕은 二重이며 다른 문보다 장대하게 만들어졌다.

문의 남쪽에 있는 광장은 朱雀大路의 일부를 복원한 것으로 바로 앞은 동서로 二条大路가 가로지르고 있다.

## ■ 第一次大極殿

「大極殿」은 宮殿 건물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건물로 即位儀式과 정월 초하루의 朝賀에는 天皇의 玉座인 「高御座(다카미쿠리)」가 놓여졌다.

정면 폭 44m, 측면 폭 20m, 지붕 높이가 27m로 平城宮에서 가장 큰 건물이다. 發掘調査의 자료와 현재 남아있는 奈良時代의 건물 등을 참고로 많은 전문가들이 연구를 거듭하여 平成13년(2001)부터 9년을 걸쳐 「平城遷都1300年」인 平成22년(2010)에 복원완성하였다.



## ■ 第二次大極殿과 內裏



天平17년(745), 聖武天皇은 紫香樂宮에서 平城宮으로 들어와 大極殿을 새롭게 옮겨지었다. 이것이 「第二次大極殿」이다.

이 大極殿과 남쪽 朝堂의 토단은 明治까지 남아있어서 建築史家인 關野貞이 平城宮跡를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다. 그 후 在地的의 庭園師인 棚田嘉十郎의 생애를 건 保存運動으로 오늘에 이르렀다. 第二次大極殿의 북쪽에 나무를 심어 기둥을 표시하고 있는 곳은 天皇의 거주지인 「內裏」터이다. 內裏의 동쪽에 복원되어 있는 건물은 宮內省으로 추정되고 있는 관청이다.

## ■ 東院庭園

昭和42년(1967), 平城宮跡의 南東 모서리 부분에서 큰 庭園터가 발견되었다. 주변 일대는 東院으로 불리고 있었기 때문에 「東院庭園」으로 이름 붙여졌으며 平成7년(1995)부터 10년에 걸쳐 복원되었다.

東西 80m, 南北 100m의 부지 중앙에는 복잡한 곡선으로 沿岸을 그리는 연못과 주변에 몇 동의 건물이 있었다. 稱徳天皇은 이 근처에



「東院玉殿」을 세우고 宴會와 儀式을 행하였다. 지금의 迎賓館에 해당한다. 前期는 중국식 庭園으로, 後期는 일본식 庭園으로 고쳐 만들어졌음이 밝혀졌다.

## ■ 平城宮跡 資料館

平城宮跡은 奈良文化財研究所가 昭和34년(1959)부터 매년 계획적으로 발굴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 성과를 종합하여 알기 쉽게 전시하고 있는 곳이 「平城宮跡 資料館」이다.

건물 안에는 인포메이션, 가이드 코너, 官衙(관청 건물) 코너, 宮殿코너, 遺物코너, 企画展示코너, 考古科学코너, 유지엄수, 그리고 휴게실이 있다.



## ■ 遺構 展示館

遺構를 발굴당시 모습 그대로 볼 수 있게 한 「遺構 展示館」으로 3棟으로 구성되어 있다. 北棟에서는 奈良時代に 네 번이나 고쳐 세워



진 건물의 기둥터. 北棟과 中央棟에서는 대형 복원모형과 발굴된 큰우물, 南棟에서는 고대 벽돌을 대량으로 깔아 만든 독특한 건물터를 감상할 수 있다.